



WP 21-03

#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손재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jsson@krihs.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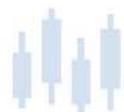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차례

01 연구 배경 및 목적	05
02 농촌지역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09
03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 분석	11
0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1





#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장래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통계청 2019a)
  - 읍면동 기준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전남(81.1%), 경북(76.8%), 전북(75.9%), 충남(70.2%)이 상위권을 차지하여(이상호 2018, 8), 인구절벽의 부정적 영향이 지방에 더욱 크게 미침을 알 수 있음
  - 통계청(2019b, 10; 2019c, 4-7)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농가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44.7%를 차지하였으나,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5.3% 감소하여 농촌의 인구 경쟁력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음
- 국가적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 사업, 도(都)와 군(郡) 주도의 시범사업,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귀농귀촌인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사업 등이 시행 중이며, 농촌 거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경제 부문에서의 안정적 수입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부분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김익희, 손재선, 변필성 외 2020, 20)
- 이러한 정책 집행의 목표지표로 삼고 있는 농촌인구수, 인구수의 증가를 측정하는 자료로 주민등록인구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와 달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주민등록인구(resident population)는 주민센터에 신고되는 출산, 사망, 전출입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월 단위로 발표되는 자료로 행정력 소비가 큰 고비용의 인구 자료이나, 거주 불명 등록제도나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해 실제 인구(actual population)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변상영, 김기환 2020, 1793)
  - 실제 인구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총조사(센서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서스로 전환되어 전체 가구의 20% 표본조사를 거쳐서 수행하기 때문에 100% 실제 인구라 하기에는 어렵고, 여전히 적시성을 해결할 수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는 단기적으로 교부금 확보의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문제가 되는 중요한 변수이며(변상영, 김기환 2020, 1794),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 효과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목
- 인구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회가 증대하고 있지만,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은 기술 적용을 위한 제약사항이 많아 전통적인 조사방법이 여전히 중요
  - 도시는 기초국을 활용한 통신사 빅데이터 등을 통해 유동 인구나 거주인구를 파악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통신사 기초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인구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짐
  - 농촌지역을 위한 인구 데이터의 직접 수집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상세한 지리적 단위에서 조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충남연구원의 마을단위 인구분포 데이터 연구에서 이미 그 실효성 확인(윤정미, 김정하 2014; 윤정미, 최돈정, 김정하 2015; 최돈정 2016)
- 농촌지역의 기초 공간 단위라 할 수 있는 행정리의 실제 거주인구 파악은 농촌인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를 제공
  - 실거주인구를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해 볼 경우, 정확한 인구 파악이 가능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이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확인하면, 향후 농촌지역 계획 수립과 사업 평가에서 인구와 관련된 변수에 적용할 만한 가중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 하나의 행정구역(면)에 속해 있지만, 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각 행정리의 차이를 확인하여 세밀한 인구 정책 마련에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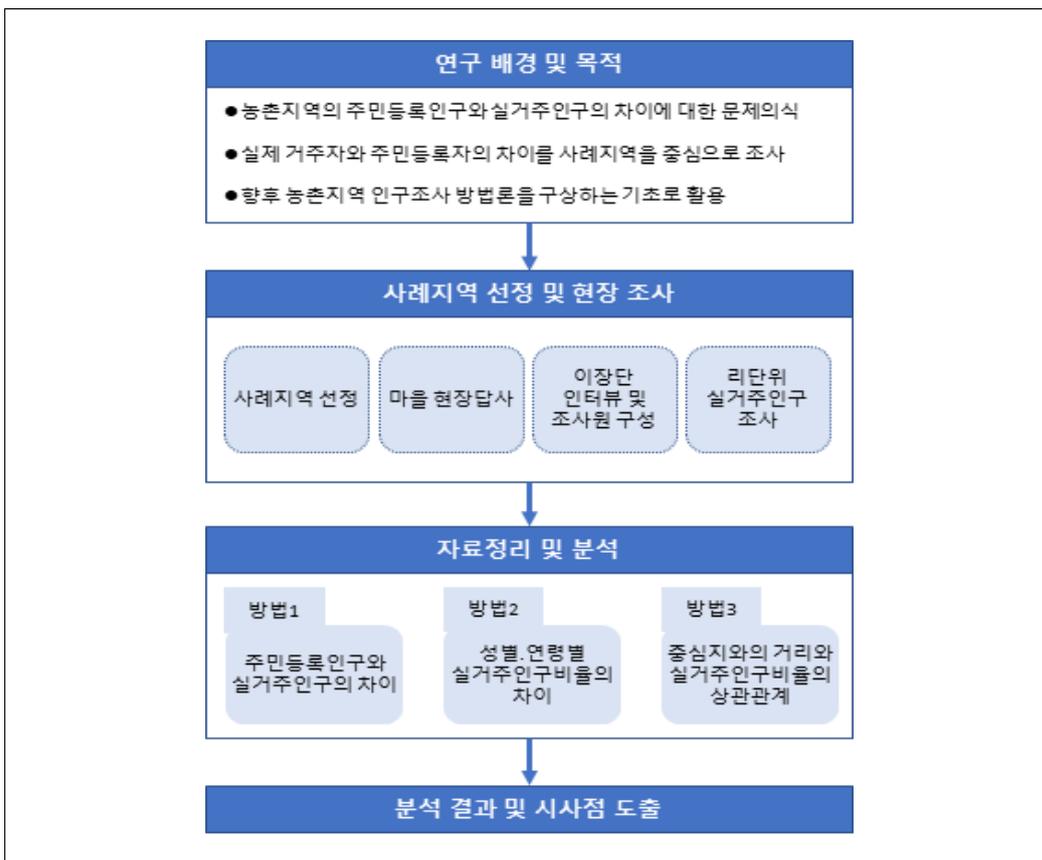
## 2)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실제 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인구 차이의 연령별·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에 대한 문제를 현지 주민과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시도하여, 향후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조사방법론을 구상하는 기초로 활용하고자 함

### 3) 연구수행 절차와 방법

- 연구수행은 농촌지역의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인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거주인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
  - 사례지역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단을 중심으로 조사원을 구성하여 리 단위의 실거주인구를 조사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분석을 시행
  -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 분석
  - 인구피라미드와 도표를 활용한 성별·연령별 거주인구의 차이와 특성 분석
  - 행정/상업 중심지(면사무소의 위치로 가정)로부터 행정리별 인구중심까지의 거리<sup>1)</sup>와 실거주인구 차이(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에 대한 비율값)의 상관관계 분석
-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그림 1** 연구의 수행 절차



자료: 저자 작성.

1) 행정리별 인구중심까지의 거리는 면사무소와 각 행정리에 포함되는 6명 이상의 100m 인구 격자까지의 평균 거리로 계산.



## 02 농촌지역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 1) 조사 개요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비교를 위한 사례 조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온 농촌의 1개 면(面)을 선정하여 실시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실제 거주인구 조사 결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해석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례 대상지역 및 지역 주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지명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음<sup>2)</sup>

### 2)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대상지역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5,000명 미만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24개의 행정리로 구성
- 2020년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행정리별 실제 거주인구의 규모를 조사
- 조사 전월(8월) 말 기준 행정리별 상세 주민등록인구를 면사무소를 통해 확보하여 실제 인구와 비교군으로 활용

### 3) 조사 방법

- 현장 조사 기간 이전에 세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체적인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방안을 논의
  - 현장 방문 기간에 이장단과 면담을 시행하였고, 조사원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 현장 조사는 실거주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장단 소속 현 이장 위주로 조사원을 모집하여 실시
  - 실제 거주인구의 세밀한 파악을 위해 실제 세대수와 연령별·성별 인구수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지를 작성하여, 조사원이 현장 조사 후 조사지에 직접 기재

2) 조사에 협조한 사례조사 대상지역 관계자 및 이장단에게 감사를 전함.

- 각 행정리별 조사 결과와 주민등록인구는 종합하여 <표 1>과 같이 집계됨
  - 행정리별 주민등록상 거주인구(a)와 실제 거주인구(b)를 활용하여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a-b)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의 비율(b/a\*100)을 계산

**표 1** 사례 지역 조사 결과

행정리 코드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a)	실제 거주인구 (b)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 (a-b)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비율 (b/a*100)
A1	77	63	14	81.8
A2	66	49	17	74.2
B1	32	18	14	<b>56.3</b>
B2	67	58	9	86.6
D1	78	59	19	75.6
D2	156	118	38	75.6
G0	96	74	22	77.1
R1	72	54	18	75.0
R2	121	105	16	86.8
R3	63	45	18	71.4
S1	106	77	29	72.6
S2	107	75	32	70.1
T1	89	79	10	88.8
T2	322	297	25	92.2
T3	128	108	20	84.4
W1	139	100	39	71.9
W2	61	47	14	77.0
Y1	456	456	0	100.0
Y2	191	178	13	93.2
Y3	385	352	33	91.4
Y4	1,039	1,049	-10	<b>101.0</b>
Y5	520	491	29	94.4
Y6	109	105	4	96.3
Y7	83	62	21	74.7
합계	4,563	4,119	444	<b>90.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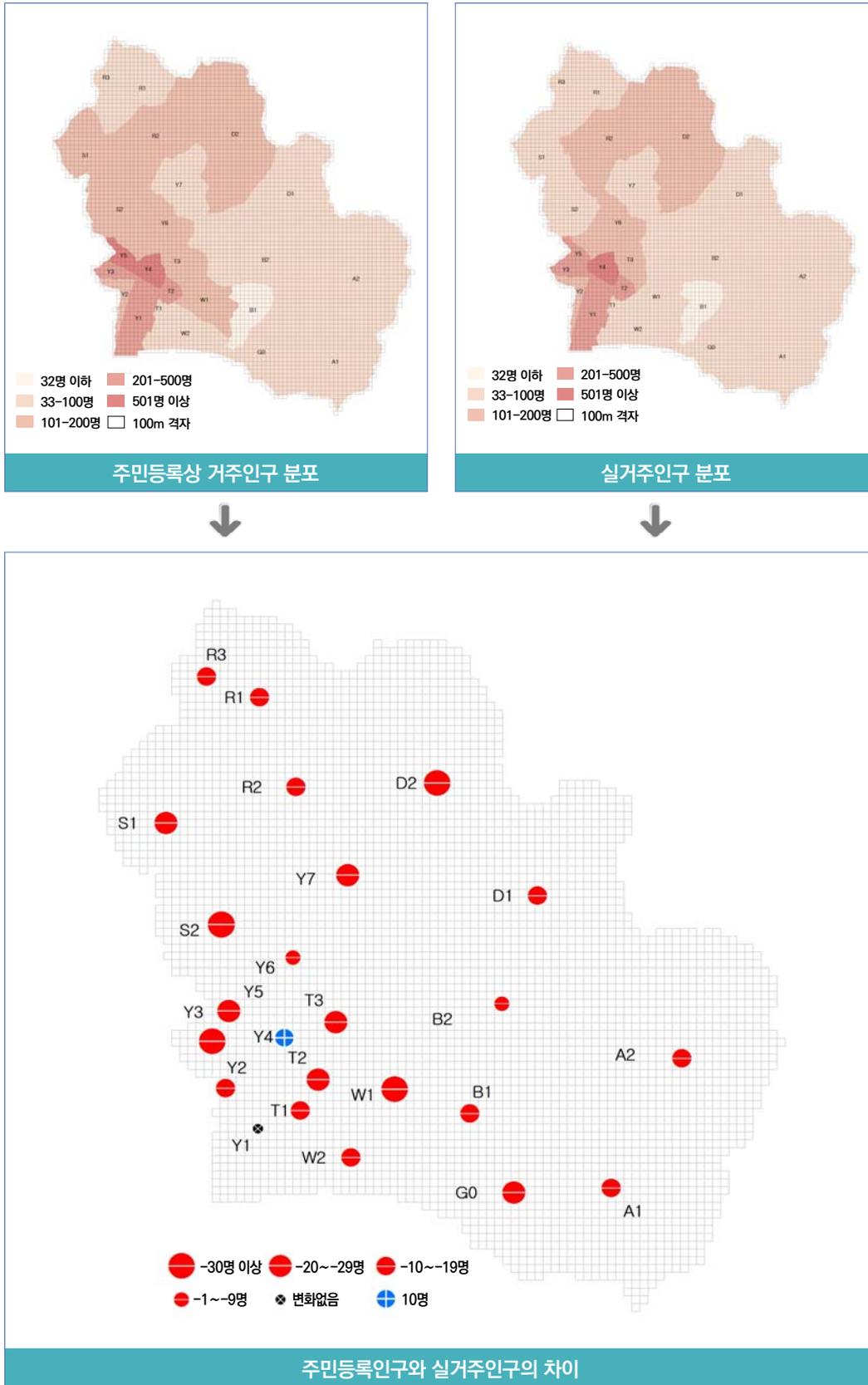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상 거주인구(2020년 8월 31일 기준); 실거주인구(2020년 9월 14일~30일 조사).

## 03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 분석

### 1)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

- 사례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는 2020년 8월 31일 기준, 총 4,563명이며, 실거주인구는 4,119명으로 실거주인구가 444명 적어, 주민등록인구 대비 90.3%를 차지(〈표 1〉 참조)
  - 행정리별로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가 최저 56.3%(B1)에서 101.0%(Y4)를 차지하고 있어 그 편차가 큼
  -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리는 Y4로 주민등록상 1,039명(실제 1,049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행정리는 B1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32명인데 비해 실제로는 18명에 불과
  - 실제 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Y4와 같이 실제 인구가 많은 사례도 존재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의 지역적 분포는 Y4와 Y5에 가장 인구가 몰려 있고, 그 주변의 Y1, Y2, Y3와 함께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W1부터 D2까지 시계방향으로 중간 정도의 인구가 분포(〈그림 2〉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분포 참조)
  - B1(32명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리는 33~100명의 인구분포를 보임
- 실거주인구의 지역적 분포는 Y4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주변의 Y1, Y2, Y3, Y5에 두 번째 수준의 인구, Y4 북쪽으로 이어지는 T3, Y6, R2, D2에 세 번째 수준의 인구가 분포(〈그림 2〉 실거주인구 분포 참조)
  - B1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구수가 분포하며, 나머지 행정리에는 네 번째 수준(33~100명)의 인구가 분포함
-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하여 실제 거주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대부분이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그림 2〉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 참조)
  - 30명 이상 적은 지역은 D2, S2, Y3, W1이며, S1, Y7, Y5, T3, T2, G0는 20~29명, R3, R1, R2, D1, A2, A1, B1, T1, Y2는 10~19명, Y6와 B2는 1~9명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제 인구수가 적은 지역으로 구분되었음
  - Y1은 실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와 같았으며, 면의 인구중심지인 Y4의 경우는 실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10명이 많은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 지도로 본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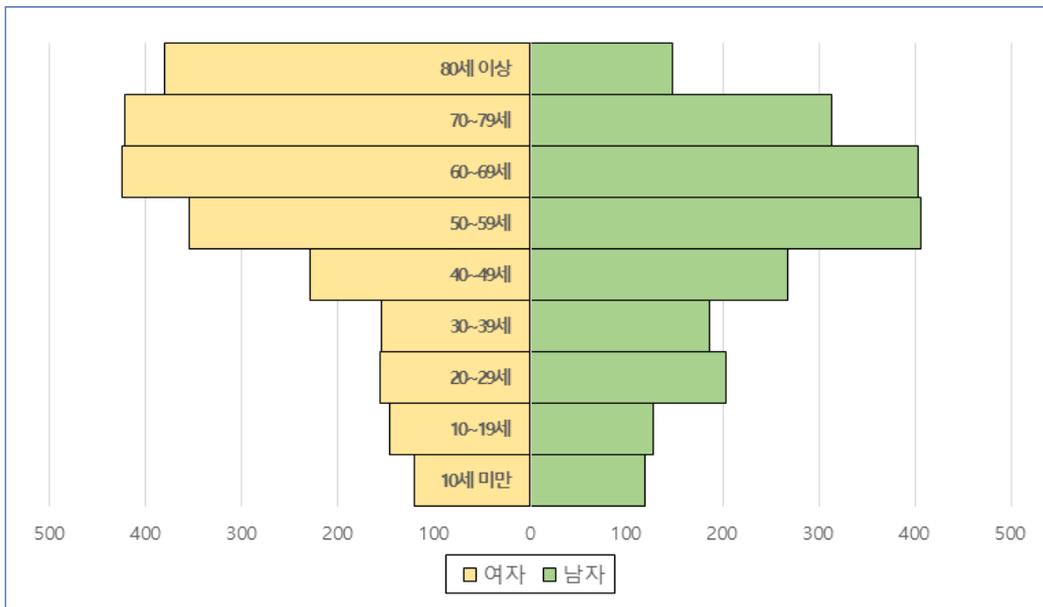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 성별·연령별 분포 특성

- 주민등록인구는 여자가 2,388명으로 남자 2,175명보다 213명이 많으며, 남녀 합계로는 60~69세에서 828명(18.1%)으로 가장 많고, 남자는 50~59세(18.7%)와 60~69세(18.5%), 여자는 60~69세(17.8%)와 70~79세(17.7%)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표 2> 참조)
- 남녀 사이의 인구구조 차이는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더 극명히 드러나는데, 여자의 경우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80세 이상까지 이어지지만, 남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임(<그림 3> 참조)

**그림 3** 주민등록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자료: 주민등록상 거주인구(2020년 8월 31일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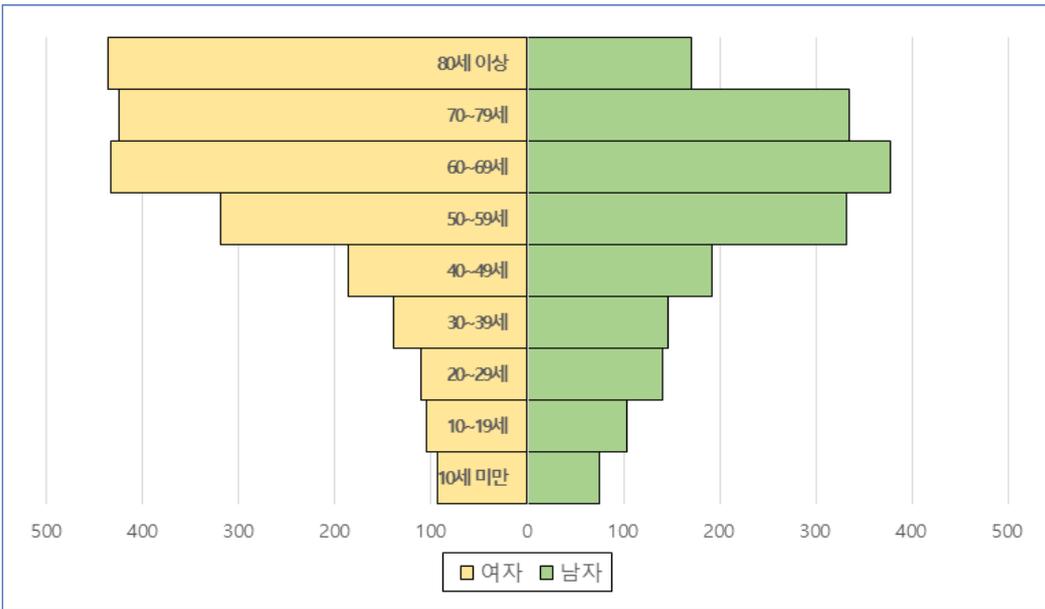
**표 2** 주민등록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

연령대	합계	비율(%)	남	남 비율(%)	여	여 비율(%)
10세 미만	239	5.2	119	5.5	120	5.0
10~19세	274	6.0	128	5.9	146	6.1
20~29세	359	7.9	203	9.3	156	6.5
30~39세	341	7.5	186	8.6	155	6.5
40~49세	497	10.9	268	12.3	229	9.6
50~59세	761	16.7	406	18.7	355	14.9
60~69세	828	18.1	403	18.5	425	17.8
70~79세	736	16.1	314	14.4	422	17.7
80세 이상	528	11.6	148	6.8	380	15.9
합계	4,563	100.0	2,175	100.0	2,388	100.0

자료: 주민등록상 거주인구(2020년 8월 31일 기준).

- 실거주인구는 여자가 2,247명으로 남자 1,872명보다 375명이 많으며, 남녀 합계로는 60~69세에서 811명(19.7%)으로 가장 많고, 남자는 60~69세(20.2%), 여자는 80세 이상(19.4%)과 60~69세(19.3%)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표 3〉 참조)
-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실거주인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여자와 남자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촌 고령화 현상에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그림 4〉 참조)

**그림 4 실거주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자료: 실거주인구(2020년 9월 14일~30일 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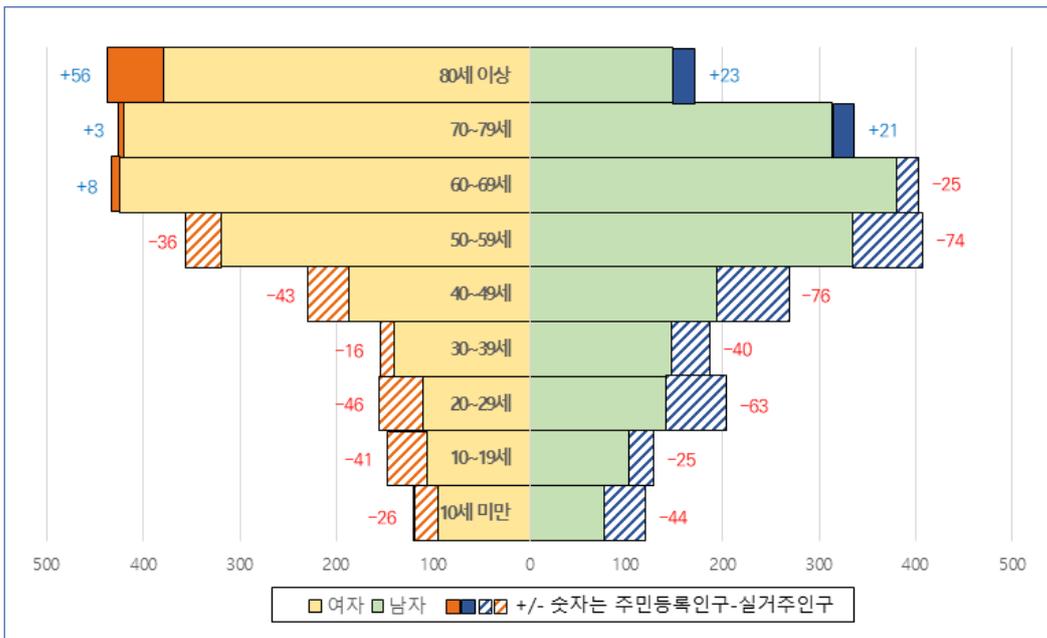
**표 3 실거주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

연령대	합계	비율(%)	남	남 비율(%)	여	여 비율(%)
10세 미만	169	4.1	75	4.0	94	4.2
10~19세	208	5.0	103	5.5	105	4.7
20~29세	250	6.1	140	7.5	110	4.9
30~39세	285	6.9	146	7.8	139	6.2
40~49세	378	9.2	192	10.3	186	8.3
50~59세	651	15.8	332	17.7	319	14.2
60~69세	811	<b>19.7</b>	378	<b>20.2</b>	433	<b>19.3</b>
70~79세	760	18.5	335	17.9	425	18.9
80세 이상	607	14.7	171	9.1	436	<b>19.4</b>
합계	4,119	100.0	1,872	100.0	2,247	100.0

자료: 실거주인구(2020년 9월 14일~30일 조사).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면, 고령층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그림 5〉와 〈표 4〉 참조)
  - 여자의 경우는 실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80세 이상에서 56명이나 많으며, 70~79세에서는 3명, 60~69세에서는 8명이 많음
  - 남자의 경우는 실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80세 이상에서 23명, 70~79세에서 21명이 많음

**그림 5**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비교



자료: 주민등록상 거주인구(2020년 8월 31일 기준)와 실거주인구(2020년 9월 14일~30일 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성별·연령별 차이 및 주민등록인구 대비 차이의 비율

연령대	차이(합계)	비율(%)	차이(남)	남 비율(%)	차이(여)	여 비율(%)
10세 미만	-70	-29.3	-44	-37.0	-26	-21.7
10~19세	-66	-24.1	-25	-19.5	-41	-28.1
20~29세	-109	-30.4	-63	-31.0	-46	-29.5
30~39세	-56	-16.4	-40	-21.5	-16	-10.3
40~49세	-119	-23.9	-76	-28.4	-43	-18.8
50~59세	-110	-14.5	-74	-18.2	-36	-10.1
60~69세	-17	-2.1	-25	-6.2	+8	+1.9
70~79세	+24	+3.3	+21	+6.7	+3	+0.7
80세 이상	+79	+15.0	+23	+15.5	+56	+14.7
합계	-444	-9.7	-303	-13.9	-141	-5.9

자료: 주민등록상 거주인구(2020년 8월 31일 기준); 실거주인구(2020년 9월 14일~30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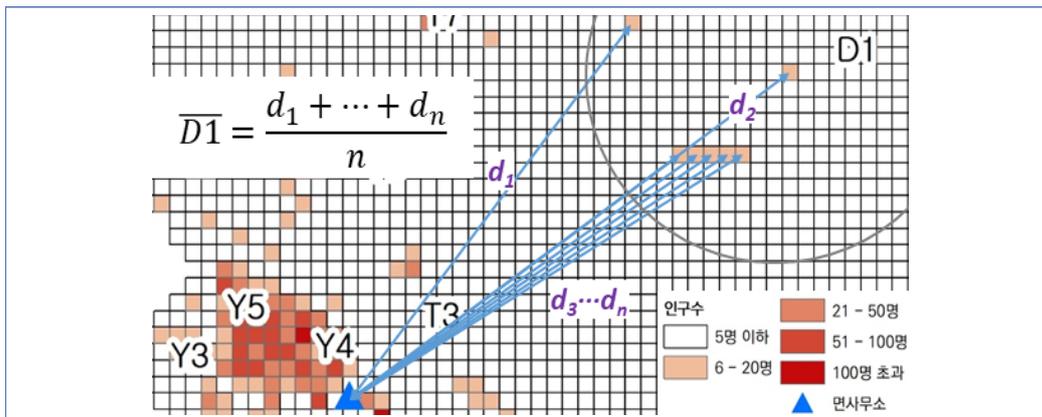
- 여자 60세 이상과 남자 70세 이상의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적음
  - 여자는 20~29세에서 46명, 40~49세에서 43명, 10~19세에서 41명, 50~59세에서 36명, 10세 미만에서 26명, 30~39세에서 16명의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적음
  - 남자의 경우는 40~49세에서 76명, 50~59세에서 74명, 20~29세에서 63명, 10세 미만에서 44명, 30~39세에서 40명, 60~69세와 10~19세에서 각각 25명의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적음
-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대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으며, 대체로 낮은 연령대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줄어든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반대로 늘어난 비율이 높음(〈표 4〉 참조)
  - 남녀 인구를 모두 고려할 경우, 인구가 줄어든 연령대에서는 20~29세에서 30.4%,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에서 15.0%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임
  - 남자의 경우, 인구가 줄어든 연령대에서는 10세 미만에서 37.0%,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에서 15.5%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임
  - 여자의 경우, 인구가 줄어든 연령대에서는 20~29세에서 29.5%,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에서는 80세 이상에서 14.7%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노년층에서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실거주인구가 많고, 노년층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은데, 인터뷰<sup>3)</sup>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노년층에서 실거주인구가 많은 이유는 경제인구 연령대 자녀의 세제 혜택 등을 위해 자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음
  - 노년층 이외의 연령대에서 실거주인구가 적은 이유는 대학, 군대, 직업 등을 위해 관외 거주하거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농업인 또는 조합원 등록 혜택 등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등이 있음

### 3) 중심지와의 거리와 실거주인구비율의 상관관계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가 행정리의 지역적 특징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의 비율
  - 사례지역의 상업/행정 중심지에 있는 면사무소와 각 행정리에 속하는 인구 6명 이상 100m 격자와의 행정리별 평균 거리(〈그림 6〉 참조)

3)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2021년 1월 7일).

**그림 6** 행정리별 평균 거리 산출 방법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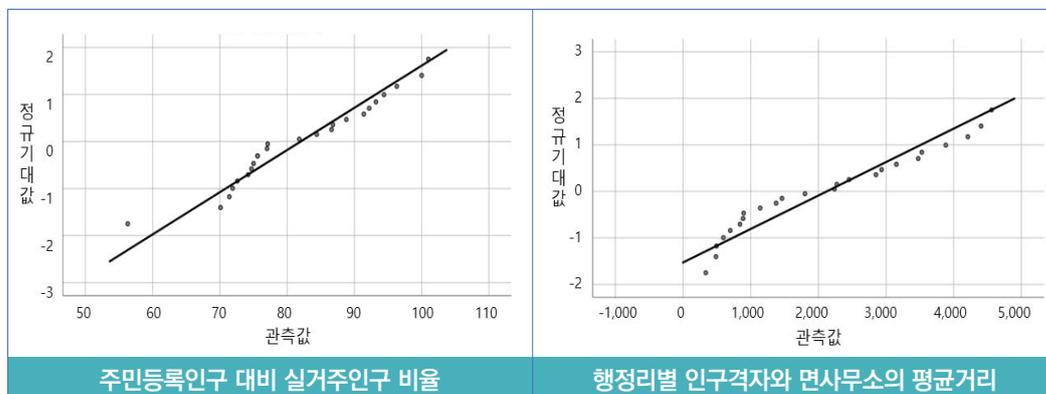
- 상관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중 최소 하나가 정규성 충족 필요
  - 유의확률에 의한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으로 정규성 충족(<표 5> 참조)
  - Q-Q도표(quantile-quantile plot)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률분포 비교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정규성 충족을 확인(<그림 7> 참조)

**표 5** 정규성 검정

구분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	자유도	CTT 유의확률	통계	자유도	CTT 유의확률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	0.170	24	0.069	0.953	24	0.311
행정리별 인구격자와 면사무소의 평균거리	0.145	24	0.200	0.917	24	0.051

자료: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7** 정규 Q-Q도표



자료: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성은 <표 6>과 같으며,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변수(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는 원래 변수(주민등록인구, 실거주인구)와의 상관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는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와 주민등록인구, 실거주인구 사이에는 약한 부(負)의 상관성을 보임
  -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과 주민등록인구, 실거주인구는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며,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와는 약한 부(負)의 상관성을 보임
  -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비율과 행정리별 인구 격자와 면사무소의 평균 거리 사이의 상관계수( $R$ )는  $-0.624$ 로 상당한 부(負)의 상관성을 보임

**표 6** 주요 변수 사이의 상관분석 계수( $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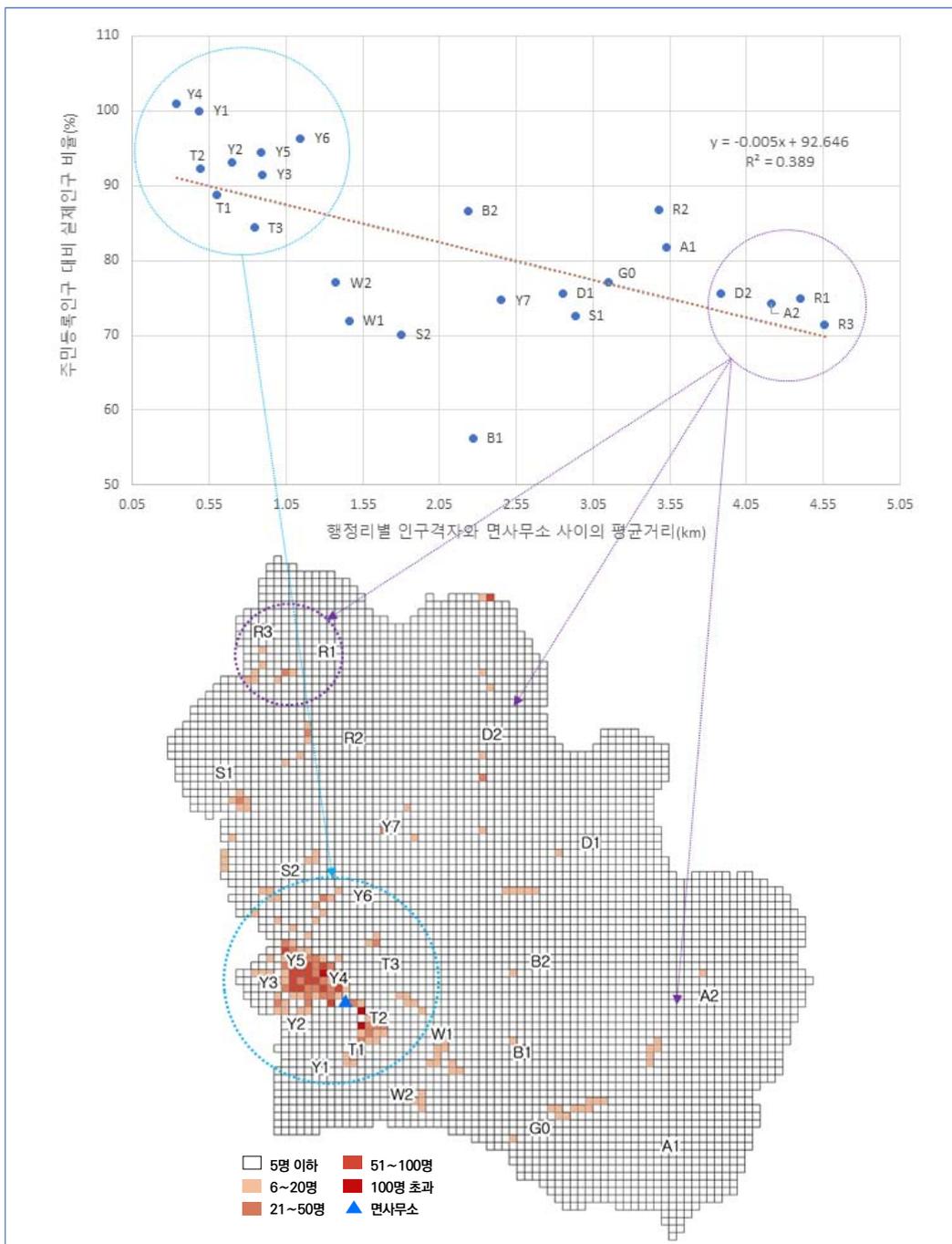
구분	주민등록인구 (a)	실거주인구 (b)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a-b)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 (b/a*100)	행정리별 인구격자와 면사무소의 평균거리(d)
주민등록인구(a)	1.000				
실거주인구(b)	0.999	1.000			
주민등록과 실거주인구의 차이(a-b)	-0.351	-0.395	1.000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 (b/a*100)	0.658	0.669	-0.466	1.000	
행정리별 인구격자와 면사무소의 평균거리(d)	-0.535	-0.537	0.240	<b>-0.624</b>	1.000

자료: 저자 작성.

- 상관관계 그래프와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보면 면의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이 높고,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그림 8> 참조)
  - 농촌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주민등록인구보다 실거주인구가 적을 확률이 높고, 반대로 농촌의 지역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일치 확률이 높음
  - 따라서,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제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분포함이 증명되었음

- 현장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거 편리성, 업종 분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중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으며, 외곽지역 주민등록자 가운데서도 중심지에 거주하며 출퇴근 경작을 하는 사례도 있음
  - 상업종사자의 경우 농업종사자보다 직장·거주 일치율이 높음

**그림 8** 인구중심점-면사무소 거리와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 간의 상관관계



자료: 저자 작성.



## 0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실거주인구는 사례지역 전체로는 약 10%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 안에서 최저 56.3~101.0%로 다양하여 세밀한 공간 단위의 조사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는 사례지역 전체로는 9.7% 정도로 444명에 불과하나, 전국 농촌지역 면 소재지에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주민등록 미등록 인구라 할 수 있음
  - 같은 면내에서도 행정리별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가 최저 56.3%를 기록한 곳부터 101.0%를 기록한 곳까지 다양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농촌의 실거주인구를 추정하기보다는 더욱 세밀한 공간 단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실거주인구 조사 및 공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자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사 주체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도시지역에서 활용되는 인구의 추정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 방법이 효율적임
  -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면 건물 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실제 가구의 위치 수준으로 데이터 구축도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트윈 등을 위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로 사용 가능
  - 통신사의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적용하는 인구 추정 방법은 농촌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이장단과 같이 실거주인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사원을 활용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면 안에서도 농촌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라 주민등록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나 확대 연구를 통해 공간 분포에 따른 실제 인구 추정 모델 개발 가능성을 확인함

-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개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거주인구를 조사 활용함으로써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 적정한 사업 예산 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거주인구의 연령규모에 대한 자료는 생활SOC 시설 공급과 운영에 있어 실제 수요에 부응한 재원의 투입,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에 활용 가능
  - 농촌중심지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높은 실거주인구비율과 주변 지역에서의 낮은 실거주인구비율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삶의 질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정책 도출 필요

## 참고문헌

김익희, 손재선, 변필성, 장요한, 오창화, 이호상. 2020.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변상영, 김기환. 2020. 오픈 데이터와 격자 시스템을 이용한 세종시 실제 인구 추정. 한국자료분석학회지 제22권 제5호: 1793-1807.

윤정미, 김정하. 2014.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I. 공주: 충남연구원.

윤정미, 최돈정, 김정하. 2015. 충청남도 실거주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 정책지도 2015 창간호. 공주: 충남연구원.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최돈정. 2016. MGDB(Micro Geo Data Base)를 활용한 지역 정책발굴: 충남 정책지도 발간 사례와 고도화를 위한 제언. 2016 제7차 충남미래연구포럼 발표자료집.

통계청. 2019a.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_\_\_\_\_. 2019b.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_\_\_\_\_. 2019c.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6.0. Armonk, NY: IBM Corp.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등 국토분야 이론이나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WP 21-03

###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진** 손재선  
**발행일** 2021년 2월 17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 2021,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